



## 본회, 월동용 조사료 공급개시

- 갈잎큐브와 갈잎 동시 공급, 농가편의 위에 다양한 사료도 구비 -

월동용 조사료 구입시기에 맞춰 본회에서는 8월말부터 갈잎큐브 및 갈잎을 공동구매, 농가 공급을 시작했다.

갈잎큐브는 지난해 본회가 공급했던 품목으로 갈잎 잎사귀를 그대로 압축, 고형화한 제품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사료의 가치(반추활동 촉진)는 그대로 보전한 조사료로 지난해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큐브 생산업체 대표 강형식 사장은 “지난해에도 큐브 제조 공정에 몇 차례에 걸쳐 이물질 선별작업을 실시해 제품이 우수했으나 올해는 품질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춰 시설 설비를 확충, 지난해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큐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주)형원무역이 중국에서 생산 수입하는 갈잎큐브는 제조 공정에 몇 차례에 걸쳐 이물질(흙, 돌, 철사, 줄기 등) 선별작업을 실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갈잎 성상을 그대로 유지, 조사료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조 과정 중 순간 고열처리로 기호성 향상은 물론 수분함량을 낮춰 제품 보관 및 건물섭취량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회는 제품의 균일한 품질 유지 및 덤핑 방지를 위해 형원무역측과 갈잎큐브 공급을 독점 계약, 본회와 형원무역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토록 했으며 가격은 어떤 경우든 양측 모두 지난해보다

20원 인하된 kg당 300원에 공급기로 결정했다.

한편 본회는 갈잎큐브와 더불어 일반 갈잎도 현재 공급하고 있다.

본회에 갈잎을 공급해 줄 한중마그네슘 대표 이경희 사장은 “여러해에 걸쳐 갈잎을 급여해 온 농가분들은 이미 조사료 선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졌다”고 전제하고 “농가분들의 선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상품의 갈잎 공급을 약속한다”고 자신했다.

갈잎은 상수리잎과 떡갈잎 두종류이며 가격은 모두 kg당 330원에 공급된다. 갈잎은 50kg 마대에 포장되어 있다. 본회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갈잎 외에도 알팔파, 루핀, 옥수수사일리지 등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료 생산업체에 따르면 현재 갈잎 수입국인 중국 현지사정이 집중 호우가 계속되는 날씨 관계로 조사료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농가의 월동용 조사료 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양육신문**

구입문의

02-969-6600